

 보건복지부		<h1>보 도 참 고 자 료</h1>	
배 포 일	2022. 6. 16. / (총 6매)	담당부서	보육사업기획과
과 장	홍 승 령	전 화	044-202-3560
담당자	남 지 원		044-202-3561
	서 유 진		044-202-3565

시간제보육 개편 시범사업 실시

- 정규보육과 통합하여 시간제 보육을 운영하는 운영모형 시범사업 -
- 6월 16일(목)부터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공모 시작 -

□ 보건복지부는 시간제보육의 접근성을 높이고,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「시간제보육 통합형 운영 시범사업」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6월 16일(목)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.

□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*한 경우,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**하고, 이용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이다.

* 병원 이용·취업 준비·단시간 근로·가족 돌봄 등의 사유

** 지정된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

○ 2015년에 본사업으로 도입된 시간제보육은 영아기 단시간·일시적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 주었다.

- 시간제보육 제공기관과 이용 아동 수는 꾸준히 증가*하였으며, 이용자의 만족도도** 높은 수준이다.

* ('15) 237개 반, 7,297명 → ('19) 490개 반, 20,388명 → ('21) 857개 반, 10,434명 이용
 ◀ '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중단으로 이용실적이 낮음

** 이용 부모의 94.1%가 양육수당 수급 가구에게 필요한 제도이고 83.6%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변('21년 만족도 조사, 한국보육진흥원)

○ 다만, 현재 운영방식*은 시간제보육반을 정규 보육반과 분리하여 별도 공간에서 운영토록 하고 있어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집에 설치가 어려워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.

* (現)시간제보육반은 정규보육반과 분리하여 3명의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있는 규모의 독립반으로 운영하도록 함

- 또한, 집에서 가까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이 없어 멀리 있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였다.

* 시간제보육반 미설치 시·군·구 수 : 52개('21.12월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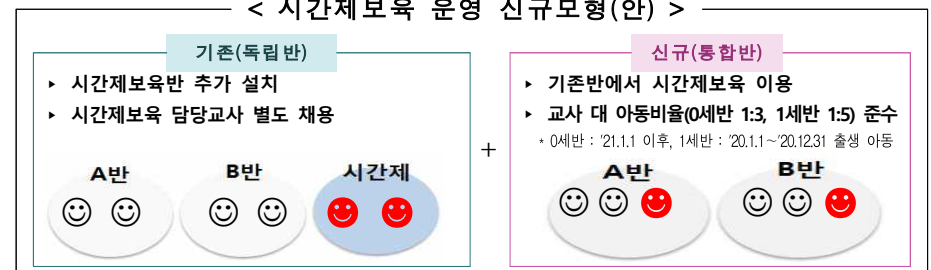
□ 이번 시범사업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, 아동의 연령별 특성 및 수요, 어린이집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*하는 시간제보육 개편의 첫 단계로서 의의가 있다.

* 시간제보육 신규모형 개발('20년) 및 비용구조 개편('21~'22년)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

○ 시간제보육 통합형 운영모형은 정규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보육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정규 보육반의 보육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신속한 확산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.

○ 또한, 독립반을 운영할 만큼의 수요는 없으나, 간헐적으로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통합반 운영으로 시간제보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.

< 시간제보육 운영 신규모형(안) >



- 이번 시범사업으로 아동 발달 및 연령에 맞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시간제보육 서비스 질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- 보건복지부는 6월 16일(목)부터 7월 15일(금)까지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, 6월 24일(금) 전국 시군구 대상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.
-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초자치단체(시·군·구)는 7월 15일(금)까지 관할 지역 내 참여 어린이집을 모집하여 참여 신청서 및 운영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.
- 보건복지부는 참여 희망 지방자치단체 중 지역 내 가정양육아동수 및 보육자원 등 사업추진 여건, 시범사업 운영계획의 구체성과 충실성 및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여 오는 7월 중 5개 시군구*를 선정할 예정이다.
- * 시간제보육 통합형 운영모형 총 150개 반을 운영할 계획이며, 시범사업 신청 현황을 고려하여 대상 지역 수 등은 변동 가능
- 또한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7개월간 시범사업을 통해 신규모형의 개선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 모형의 다양화 및 추가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.
-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육정책관은 “시범사업을 통해 정규보육과 시간제보육의 유연한 통합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간제보육이 필요할 때 보다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”라고 밝히며,

- “시범사업의 면밀한 분석·평가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논의, 정책연구를 함께 진행할 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유기적 협력을 부탁드립니다.”라고 전했다.
-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6월 16일(목)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(www.mohw.go.kr) 공지사항에서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, 자세한 내용은 보육사업 기획과(044-202-3561, 3567)에 문의할 수 있다.

- <붙임> 1. 2022년 시간제보육 지원사업 개요
2. 2022년 시간제보육 개편 시범사업 개요
<별첨> 2022년 시간제보육 개편 시범사업 공모계획

붙임 1 시간제보육 지원 사업 개요

□ 사업 목적

- 가정양육 부모가 긴급·일시적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

□ 사업 개요

- (사업기간) 2015년 ~ * '13~'14년 시범사업 실시
- (사업규모) 20,882백만 원('22년 기준)
* 제공기관 890개소 규모 인건비·운영비 및 인프라 구축, 사업운영비 구성
- (지원대상) 영아수당(현금) 또는 양육수당 수급가구 중 6~36개월 미만 영유아
- (지원내용) 시간제 보육료, 제공기관·관리기관 인건비 및 운영비, 제공기관 리모델링비 등 지원
- (법적근거)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6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
- (추진실적) 2018~2021년 반당 월평균 42건·156시간 이용

(단위 : 개반, 건, 시간)

구분	'16년	'17년	'18년	'19년	'20년	'21년
제공반수	382	437	443	490	681	857
총 이용건수	199,658	288,827	334,961	372,403	136,059	198,374
총 이용시간	700,364	1,009,752	1,214,717	1,332,553	511,044	756,419

* '20~'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중단으로 낮은 실적 기록

◆ 시간제보육 이용방법

- 이용대상 : 6개월~36개월 미만 영아
- 이용대상 : 육아종합지원센터·어린이집에 설치된 시간제보육반
- 이용시간 : 월~금, 9~18시
- 아동등록 : 임신육아종합포털(www.childcare.go.kr) 또는 시·도 육아종합지원센터,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방문등록
- 사전예약 : 임신육아종합포털(www.childcare.go.kr)·아이사랑 앱 또는 전화신청(1661-9361)
- 보육료 : 시간당 4,000원 중 1,000원 자부담(3,000원 정부지원)

붙임 2 2022년 시간제보육 시범사업 개요

□ 시범사업 주요 개요

- (사업목적) 시간제보육 신규모형에 대한 부모 만족도, 운영방식 변화 등 정책 효과성을 분석하고 운영 상 문제점 및 개선 필요 사항 사전 발굴
- (사업기간) 2022년 8월 ~ 2023년 2월, 7개월간 시행
- (대상지역) 5개 시군구 및 해당 지역 내 신청 어린이집 150개 반
* 시범사업 신청 현황을 고려하여 대상지역 수 등 변동 가능
- (지원대상) 어린이집,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영아수당(현금)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6개월 ~ 최대 2세반 전 영유아
- (예산) 15억 (국비 50%, 지방비 50% 매칭)
- (운영모형) 시간제보육 통합형
* 정규보육반 미충족 정원의 일부(정원의 40% 이내)를 시간제보육으로 운영

□ 운영기준

구분	현행 모형(독립반)	시범사업 모형(통합반)
운영시간	○ 9:00~18:00	○ 9:00~16:00
이용시간	○ 시간 단위 예약	○ 1개월 단위 예약
지원대상	○ 영아수당(현금) 또는 양육수당 수급 아동	
지원시간	○ 월 80시간	
교사	○ 시간제보육반 담임교사	○ 기본보육반 담임교사
대상	○ 6~36개월 미만 영아 (혼합)	○ 6개월~최대 2세반 전 영유아
보	보육료*	○ 시간당 5천 원(자부담 2천 원*)
조	인건비/	○ 시간제교사 인건비·운영비 지원
금	운영비	○ 시간제교사 수당 지급
		○ 시범사업 인센티브 지원

* 시범사업 평가 및 연구용역 결과 등을 고려하여 독립반 및 통합반의 시간당 보육료 인상 예정이며, 보육료 인상과 연계하여 독립반 운영비 조정 예정

** 시범사업 기간에 한해 부모 자부담 2천 원 중 1천 원은 국비 지원하여 현행 동일하게 1천 원으로 운영 (시범사업 결과 분석을 통해 실제 이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육료, 자부담, 지원시간 조정 예정)